

보도자료	 <div>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</div>	
	담당부서	국제심의관실
	담당자	국제심의관 진상훈 (☎ 3480-1969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대법원,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

-대법원이 지원한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식도 열려-

- 대법원은 2012. 7. 18.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-베트남 사법부간 인적·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
-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위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식에도 참석함
-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의를 가짐

1. 개요

-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012. 7. 18. 09:00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대법원을 대표하여 참석한 후, 같은 날 15:00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콕 풍(Dang Quang Phuong) 최고인민법원 선임 부원장과 회담을 열고, 「대한민국 대법원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

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」를 체결함

-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, 2005년 러시아, 2006년 중국, 2012년 페루에 이어 다섯 번째이나, 양국 사법 교류·협력의 기본 원칙 외에 사법제도 개선 지원까지 내용으로 한 것은 이번 양해각서가 최초임

2. 추진 경위

-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고위 법관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는 등 양국 사법부간 교류를 활성화해오고 있었음
- 베트남 사법부는 2006. 8. 한국의 선진 사법제도를 전수받고자 한국 국제협력단(KOICA)에 법관연수원 건립 지원을 포함한 ‘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(1차 사업)’을 요청하였고, 위 사업은 2008. 11. 승인됨
- 대법원은 위 사업에 사업수행기관(PMC)으로 참여하여 한국 법관연수 전문가의 베트남 파견, IT 강사 교육 및 베트남 법관에 대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
- 베트남은 이러한 지원에 기초하여 법관연수원 건설에 착공하였고, 2012. 7. 18. 강의와 숙소시설을 갖춘 베트남 법관연수원이 완공됨
-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2012. 2. 한국 국제협력단에 법원공무원교육원 추가 건립 지원을 포함한 ‘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강화 지원사업(2차 사업)’을 요청하여, 현재 실시협약이 진행 중
- 대법원은 위 사업에도 사업수행기관(PMC)으로 참여하여 한국 전문가 파견, 베트남 연수생 초청, 한국 사법제도 강의,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임

3.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

- 양국 사법교류·협력의 기본 원칙

- 상호 방문단 파견 시 업무 협조, 판례·법령·사법통계의 상호 교환
-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 강화 지원
 - 베트남 법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
 - 한국 전문가(법관) 베트남 파견 :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운영 및 연수과정 구성 지원, 강의교재 및 편람 개발
 - 한국 사법제도에 관한 강의,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

4. 기대 효과

- 체제전환국으로서 적극적인 개혁·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적 성장 및 그에 걸맞은 사법제도의 발전을 이루어 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원함
- 한국과의 경제·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베트남에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사법제도가 형성되면 현지 교민 및 기업의 경제·사회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됨
-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,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
- 베트남에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법 권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됨

5. 향후 일정

-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012. 7. 18. 17:00 쩌엥 떤 상(Truong Tan Sang)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하고, 같은 날 19:00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할 예정임
- 또한 7. 19. 09:30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소속 법관 100여명을 상대로 ‘한국에서의 사회발전과 사법부의 역할’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임